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장마철 대비 집중점검 실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및 지역민 안전 확보에 총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26년 07월 13일(월) 16:25

ⓒ 익산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용)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일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해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배수장 펌프 가동 상태 및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저수지 제당 및 방수로 노후화 상태 △수문 개폐 장치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가동이 필수적인 배수시설의 실제 가동 능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장마철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를 정비했다.

김태용 지사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인 재해 예방 조치만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장마 기간 동안 전 직원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해정 기자

url :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77382
Copyrights ⓒ익산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